

백두산 아기호랑이 이름 공모 계획

□ 공모개요

- 공모목적 : 이번 탄생한 아기호랑이는 산림청 백두산호랑이중 번식에 처음 성공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고 대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아기호랑이 이름 국민 공모
- 공모기간 : 2012년 11월 5일 (월) ~ 11월 16일 (금) (2주간)
- 참가대상 : 제한없음
- 응 모 :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응모방법 : 이메일 발송 (이메일 발송처 : kml82@forest.go.kr)
 - 응모서식 : 응모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거주지 주소 기재
아기호랑이 이름, 이름의 뜻과 의미, 작명동기
 - 기본정보 : 아기호랑이 부모의 정보 및 생년월일 (붙임참조)
- 심사방법 : 우수이름 5개를 1차 선정하여 (1차 심사 : 내부 심사) 정부대전 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후 최종결정 (직원 홈페이지 게시·설문)
- 포상내역 : 상금 20만원
- 당선자 발표 및 시상 : 11월 말 (추후 산림청 홈페이지공지, 11월 25일 예정)
- 문 의 처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단 042-481-4287

백두산 아기호랑이 기본사항

▶ 아기호랑이의 기본정보

- 생년월일 : 2012년 6월 7일 탄생
- 성 별 : 암컷
- 부 모 : 금강(父, 2005년생), 금송(母, 2004년생)
- 탄생의의 : 산림청 백두산 호랑이의 첫 번째 번식 성공으로 이번 백두산 아기호랑이 탄생을 계기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백두산 호랑이 번식의 길이 열림
- 향후계획 : 2014년도까지 호랑이 전문 사육기관인 대전오월드의 관리를 받고, 그 후 경북 봉화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겨 백두산 호랑이의 위상을 지켜나갈 계획

▶ 산림청의 백두산 호랑이 도입배경

1994년 한·중 수교 기념으로 양국의 우호증진을 상징하는 백두산 호랑이는 장쩌민 주석의 1차 기증(1쌍)과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의 2차 기증(1쌍)을 통해 2세 번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2011년 산림협력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백두산 호랑이의 종 보전을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의 결과로 도입 후 번식 성공

▶ 추진경과

- 1994. 10.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1쌍 도입
- 2005. 11. 한·중 제5차 산림협력회의 결과로 1쌍 도입
- 2011. 4. 한·중 제8차 산림협력회의 1쌍 추가 도입 ROD체결
- 2011. 5. 종번식을 위한 전문기관(대전동물원) 임시 위탁사육 MOU체결
- 2011. 7. 중국호림원 방문 도입개체의 선정
- 2011. 10. 백두산 호랑이 대전동물원 입식 (암수 1쌍 : 금강, 금송)
- 2012. 2. 금강, 금송 합사 실시
- 2012. 6. 2세 번식 성공

▶ 부모 백두산호랑이 < 금강(♂), 금송(♀) > 이력 및 작명의 배경

- 금강(♂) : 2005년 6월 23일생, 행동이 민첩, 호피가 선명, 치아 및 피모 양호
- 금송(♀) : 2004년 5월 23일생, 3회 출산, 자연포유 경험, 강한 모성에

·작명의 배경 : 금강송(*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 강하고 단단한 소나무 중의 소나무, 기개와 절개, 장수의 소나무로 백두산 호랑이 역시 이러한 금강송과 같이 장수와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의 이름
- 금강송은 임금과 사대부의 관재(棺材)로 속이 황금빛을 띠어 경복궁과 같은 궁궐과 천년고찰의 대들보로 사용되어 죽어서도 천년의 영화를 이어가고 있다.
- 금강송은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조성되는 경상북도 춘양면 서벽리에 자생한다.